

오픈 소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Open Source Library Management System)



.....
심 경

정보학박사
한국도서관협회 평생회원
(주)아이리스넷 대표
shim@irisnet.co.kr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주고 받는다. 중국 사람들이 새해에 하는 덕담은 우리보다는 좀더 직접적이라고 한다. 그 중 많이 쓰이는 것이 “공시파차이(恭喜發財)”라고 “돈 많이 버세요”라는 말이다. 새해에도 비영리기관인 도서관에서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¹⁾ 무료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²⁾을 가질 수 있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료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소 다른 개념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픈 소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란 말은 어찌면 들어봤을 수도 있다. 또한 웹 2.0의 화두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것이 참여(participation), 공유(sharing), 개방(openness)이라는 개념이며, 웹 2.0기술에는 오픈(open)이라는 단어와 사회(social)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은 짐작이 간다. 웹2.0이라는 용어가 2004년에 열린 O'Reilly Media 웹 2.0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주지되었다고 하니 이와 같은 웹 2.0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우선 오픈 소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은 아직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란 점을 밝혀둔다. 다만 외국에서 왜 오픈 소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당장은 아닐지라도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계에도 이런 변화가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질 뿐이다.

1) 세월이 가면서 이도 진리는 아닌 듯하다. 영국 British Library는 국제적 문헌제공서비스(DDS)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2)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은 Library Automation System (LAS), Library Management System (LMS) 또는 Integrated Library System (ILS)라고 영어로 표현된다. 이 글에서는 필요 시 ILS라는 약자로 표현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인가?

오픈 소스 ILS를 살펴보기 전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상식으로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오픈 소스라고 하면 일단 무료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무료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료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하면, 무료 소프트웨어란 “누구에게 언제나 자유롭게 수정 또는 수정 없이 재배포, 복사할 수 있으며 배포를 위하여 무료 또는 비용을 부가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³⁾.

- ✓ 목적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작동(run)할 자유 (자유 0)
- ✓ 프로그램의 작동원리 연구 및 각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할 자유 (자유 1). 이를 위하여 소스 코드에 접근이 전제됨.
- ✓ 남을 돕기 위하여 카피를 재배포할 자유 (자유 2).
- ✓ 모든 사회가 도움을 얻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결과물을 대중에게 발표할 자유 (자유 3). 이를 위하여 소스 코드에 접근이 전제됨.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일련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며, 오픈 소스는 단순히 소스를 공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10가지 기준이 있다고 한다⁴⁾.

- ✓ **무료 재배포:** 다른 여러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하는 통합소프트웨어의 일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증여하는데 라이선스가 어느 쪽에도 제약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판매 라이선스는 로열티 또는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 **소스 코드:** 프로그램은 반드시 소스 코드를 포함해야 하며 소스코드와 더불어 컴파일된 파일도 제공되어야 한다.
- ✓ **파생물:** 라이선스는 수정이나 파생물(derived works)을 허용해야 하며 원 소프트웨어가 가진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포되어야만 한다.

3) Free Software Definition. Free Software Foundation. <http://www.fsf.org/licensing/essays/free-sw.html>

4) The Open Source Definition. 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docs/osd>

- ✓ **저자 소스코드의 보전(保全):** 만약 원 소스 코드가 구현될 당시 수정 목적을 위하여 “패치 파일”을 배포하도록 라이선스에 명시되어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형태로 배포해서는 안 된다.
- ✓ **대상자에 대한 차별금지:** 라이선스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 **적용분야에 대한 차별금지:** 라이선스는 누가 어떤 분야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 사용하든, 유전자 연구에 사용하든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
- ✓ **라이선스의 배포:** 프로그램에 부여된 원래 권리는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발행하지 않아도 재배포를 받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 ✓ **라이선스는 특정 제품에 제한되지 않음:** 프로그램에 부여된 권한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소프트웨어 배포의 일부여야 한다고 제약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배포된 소프트웨어에서 추출되어 사용되거나 배포되어도 그 프로그램 라이선스 조건 내에서는 재배포 받은 측도 원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되어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라이선스의 다른 소프트웨어 제약금지:** 라이선스는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제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는 동일한 매체에 의하여 배포되는 모든 다른 프로그램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여야 한다고 제약해서는 안 된다.
- ✓ **라이선스의 기술 중립성:** 라이선스의 어떤 조항도 개별 기술 또는 인터페이스 스타일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라이선스는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위 10가지 기준에 언급되는 “권한”은 이용자의 권한을 의미하며 “라이선스”는 일반 공공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GPL)⁵⁾를 의미하며, 이는 흔히 우리가 아는 이용자 또는 최종 소비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형태의 라이선스가 아닌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정당한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규칙”을 담고 있다. 간략히 말하여 그 명칭과는 상반되게 무료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에게 어떤 형태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용조건을 명시한 표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왜 오픈 소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시작되었나?

궁금한 것은 오픈 소스 ILS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엄청나게 복잡한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누가 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등록을 할까 하는 점이다. 일단 오픈 소스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도서관계가 벤더에 의존하고 벤더에 의하여 끌려가는 도서관 자동화에 대하여 불만

5)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opensource.org/licenses/gpl-3.0.html> 을 참조하면 된다.

이 누적된 것을 들 수 있다. Digital Library Federation에서 발표한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Report of the DLF Initiative”의 서문⁶⁾을 보아도 전자자원시스템의 기능성을 결정한 배경에 벤더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결국 우리 사서가 이제는 기능은 물론 구조까지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오픈 소스 ILS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도 ILS에 대한 기존 벤더들에 대한 불만과 주도권을 도서관계가 가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⁷⁾.

도서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업체가 ILS를 개발하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등록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개발당사자가 영업, 판매, 유지보수 등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아서이며, 둘째, 개발 회사가 비즈니스를 그만두게 될 때 고객을 위한 향후 방지책(future proofed)으로, 셋째, 해당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 보다 많은 사서나 프로그래머가 관련될수록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오픈 소스가 그 프로젝트 자체나 이용자를 위하여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⁸⁾. 다른 이유들은 납득할 수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것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가 왜 개발을 할까 하는 것이다. 정작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은 취미 또는 다른 이유로 개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개발이 어려우며, 또한 리눅스(Linux)처럼 대상 사용자 층이 넓은 것이 아니므로 그만큼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층도 두텁지 않을텐데 말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오픈 소스 ILS가 처음 발생한 경로와 이들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오픈 소스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최초이며 가장 주목 받는 오픈 소스 ILS는 Koha로서 뉴질랜드의 Katipo Communications Ltd라는 회사가 2000년 1월에 최초로 배포하여 현재 350개가 넘는 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경은 1999년에 뉴질랜드의 도서관 컨소시엄인 Horowhenua Library Trust(HLT)가 새로운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장조사를 한 후 현존 제품들은 너무 비싸거나 필요한 기능이 결핍되었다는 판단아래 Katipo에 주문하여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알려진다. 한발 더 나아가 HLT는 이 제품을 다른 도서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

6) Jewel, T. D. (2004).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Report of the DLF Initiative. Retrieved August 8, 2005, from <http://www.diglib.org/pubs/df102/>

7) 예를 들면, Breeding, M. (2002). An Update on Open Source ILS. Information Today, 19(9), Retrieved December 5, 2008, from <http://www.infotoday.com/it/oct02/breeding.htm>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Evergreen. Evergreen. October 22, 2008, from http://open-ils.org/dokuwiki/doku.php?id=faqs:evergreen_faq_1 ; Breeding, M. (2008). Perceptions 2007: an interantional survey of library automation. Library Technology Guide. Retrieved December 15, 2008, from <http://www.librarytechnology.org/perceptions2007.pl>

8) Corrado, E. M. (2004). Open Source Library Automation Systems. Internet Librarian 2004, Monterey, CA, November 16, 2004. <http://ecorrado.us/scholarly/il2004/corrado-il2004.ppt>

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보급을 결정하였다. Koha는 중·대형 도서관을 위한 ILS로서 최소한의 하드웨어 자원만을 필요로 하고 리눅스 또는 윈도우 운영체제, 아파치 웹 서버, 그리고 MySQL과 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Perl로 개발되었으며 초기에는 목록, 대출과 OPAC모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04년에 버전 2가 출현하였으며, 현재는 수서, 연속간행물 모듈은 물론 MARC(UNIMARC, MARC21, KORMARC, ESMARC 등), MODS, 더블린 코어, Z39.50, 바코드, RSS피드, 웹 인터페이스는 물론 다수도서관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밖에 다국어처리를 지원하며, 폴란드어, 불어, 중국어 버전이 만들어졌고, 전체 소프트웨어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 밖에 미국의 Evergreen, 프랑스의 PMB, 필리핀의 PhpMyLibrary, 브라질의 GNUTECA, 핀란드의 학교도서관용 ILS인 Emilda, OpenBiblio와 최근 출현한 Care Affiliates, Index Data, LibLime 등 많은 오픈 소스 ILS가 전세계에 걸쳐 존재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Emilda는 2005 중반 이후로는 업데이트나 새로운 버전이 중지된 상태이며 OpenBiblio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반면 Evergreen은 미국 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가 Georgia Library PINE Program을 위하여 개발하고 운영하는 오픈 소스 ILS로서 252개 공공도서관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이는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주(州) 전체 컨소시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부터 디자인한 오픈 소스 ILS로서 현재는 그 OPAC에 FRBR 형태(FRBR like)의 그룹핑과 패시검색(facet search) 지원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그 밖에 도서관 자동화 관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는 통합검색(cross-searching)을 지원하는 LibraryFind, Xerxes, MetaLib X-Server, dbWiz 등이 있으며 오픈 URL 기반 링크시스템은 Umlaut, CUFTS 등이 있고, Keystone은 통합검색과 링크시스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요즘 대학 등 기관에서 자체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관 기록보존소(institution repository)를 구축하는데 이들을 위한 디지털도서관과 기록보존소 소프트웨어로 DSpace, aDORe, Greenstone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서관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종류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존재한다⁹⁾.

이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오픈 소스 ILS가 처음 발표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oha는 350개가 넘는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Evergreen은 44개 도서관시스템¹⁰⁾의 25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

9) 도서관 자동화 관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개념, 추세, 이용 전에 궁금한 점과 그 종류에 대하여는 Library Technology Reports, 43(3) (May/June 2007)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다.

10) 미국도서관은 여러 도서관이 하나의 도서관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를 library system 또는 library network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지역, 대학, 또는 그 경계를 넘는 협동체제의 단위로 구성된다. 따라서 분관이 많은 미국 대학도서관들이 단순히 “...도서관” 대신 “... library syste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예가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System이다.

들은 초기 일부 필수기능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용 ILS에 필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마셜 브리딩은 2007년 8월 8일에서 2008년 1월 5일에 걸쳐 흥미있는 조사를 실시하였다¹¹⁾. 질문내용은 자관이 사용하는 상용 ILS 및 고객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오픈 소스 ILS에 대한 사서의 관심도를 묻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결과는 대체적으로 많이 보급된 상용 ILS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당연하지만 자관에서 사용하는 상용 ILS에 불만이 많은 사서일수록 오픈 소스 ILS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오픈 소스 ILS를 채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 개별 도서관이 오픈 소스 ILS를 채택할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오픈 소스 ILS가 성공하려면 외부 도움이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체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내에는 오픈 소스 ILS가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무료 ILS는 있다. 물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앞서 살펴본 무료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을 위한 KOLAS II 또는 그 이후 버전이다¹²⁾.

KOLAS II는 여러 면에서 앞서 소개한 Koha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 배포시기와 개발목적이 그렇다. 이 시스템은 2000년 9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한 업체를 선발하여 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당시 전산화가 미비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공공도서관의 전산화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단 Koha와 비교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이 주도한 KOLAS II의 문제를 알아보자. 문제란 개발과정 이후부터 모두에게 석연치 않거나 옳지 않게 보이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필요 없는 검색엔진. 무료라고 하던 KOLAS II의 설치를 위하여는 거의 다른 상용 ILS를 구매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비”를 요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무료인 KOLAS II를 개별도서관에 설치 수요조사를 위하여 발송한 공문에서¹³⁾ 부과한 경비내역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한 설치비, 데이터 변환비, 시스템 관리교육비, 사용교육비 및 DBMS와 검색엔진 구매 비용이며, 서울에 위치한 도서관이 Unix기반으

11) Breeding, M. (2008). Perceptions 2007: an interantional survey of library automation. Library Technology Guide. Retrieved December 15, 2008, from <http://www.librarytechnology.org/perceptions2007.pl>

12) 이지형 (2000. 8. 29). 공공도서관 자료 인터넷 이용 'OK'. 조선일보.

13)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 수요조사. 2000. 12. 11.

로 설치하려면 약 2,100만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준비하도록 알리고 있다. 국내의 도서관 자동화 업체 가운데 설치비와 데이터 변환비, 교육비를 별도로 받는 곳은 없고, 이것은 시스템 비용 안에 들어있다. KOLAS II개발업체가 부과한 이러한 비용은 “무료”라는 시스템 자체의 비용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치, 교육 등을 위해 다니는 데 필요한 당연한 경비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그 금액 자체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비의 내역에 포함된 검색엔진이다. 검색엔진은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든 도서관이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것은 옳지 못하며 법에도 어긋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 검색엔진을 붙여서 개발 또는 판매하는 업체는 필자가 알기로는 없다. 왜냐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규모를 감안할 때, RDBMS에서 제공하는 검색기능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검색엔진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인 KIRIS는 20 만 건 가까이 되는 서지레코드를 보유하고 기사색인까지 서비스를 하지만 검색엔진 없이도 전혀 검색속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검색엔진은 많은 기능이 있지만 현재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서 대규모 데이터 핸들링을 위하여 필요할 뿐이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수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API의 공개. KOLAS II의 배포과정은 접어놓고 일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RFID 연계의 문제이다. KOLAS II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개발비를 투입한 이상 그 소스 코드의 소유는 엄연히 국가이다. 그런데 API 조차 공개하지 않아 KOLAS II를 설치한 도서관들이 그 개발업체의 RFID만을 쓰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타 업체들은 적절한 제품과 기술력이 있어도 KOLAS II에 대한 API가 없어 사업에 제안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이에 대한 논란¹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RFID API를 다운 받을 수 있는 화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시험해 보았을 때 다운로드를 위하여 왜 이름, 소속과 이메일 등을 묻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입력이 되지를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한 대학교수도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API 공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공된 “미봉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KOLAS II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버전이 아니면서도 국내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중 베스트 셀러 1위를 그 배포 시작 이래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KOLAS II는 2007년 현재 400개 공공도서관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해 13개관이 KOLAS II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¹⁵⁾. 이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564개라고 하니 그 중 73%를 넘는 점유율로서 대통령도 부러워할 지지울(?)이

14) 김진희(2007). 안타까운 국립중앙도서관 RFID: 'A업체' KOLAS 등에 업고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80% 점유. IT사이드, 7/11/2007. Retrieved Feb. 20, 2008; 김진희(2007). 국립중앙도서관, “RFID 표준API 공개하겠다”: 제3기관 뒤서라도 API 기능 수정/보완해 나갈 것. IT사이드, 7/13/2007. Retrieved Feb. 20, 2008.
 15) 한국도서관협회. (2007). 『한국도서관연감』, 2007.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다. KOLAS II 개발 당시 국내 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업체들은 웹 버전의 개발을 착수하기 시작할 시기였는데, 유독 KOLAS II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개발되었다. 문제는 8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버전인 KOLAS III를 개발하였는데 여전히 웹 버전이 아니다¹⁶⁾. 다른 사안은 다 접어놓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치비는 이제 KOLAS III의 배포 시에는 도서관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웹 버전은 인터넷 상에서 원 클릭으로 권한이 부여된 PC에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석연치 않은 점은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집안에서도 맡아들 노릇 하기가 어려워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란 책이 나올 정도인데, 도서관들의 맡이 노릇 하기에 국립중앙도서관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도 8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한다.

결언

해외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ILS를 비롯한 각종 도서관 자동화 관련 솔루션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배경과 종류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에도 머지 않아 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들의 사용 일례로 KAIST 도서관은 오픈 소스 리포지토리 소프트웨어인 DSpace를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KOLAS II가 하루 속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닐지라도 진정 공공도서관을 위한 ILS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종종 필자는 KOLAS II를 사용하거나 알고 있는 우리 분야 사람들에게서 옮기기 어려운 불만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있다. 후자 중 하나가 KOLAS II를 사용하지 않으면 KOLIS-Net과 연계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사용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KOLAS II가 아닌 제품으로 KOLIS-Net과 연계를 시도해 보았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다소 미진하지만 틀림없이 Z39.50 프로파일이 마련되어있었고,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연계가 가능하였다.

앞서 오픈 소스 ILS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이 불만이 있으면 안 쓰면 된다. KOLAS II에 대안은 국내에 다수 존재한다. 근래 제법 여러 공공도서관들이 KOLAS II를 배제하고 자체 개발을 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찾고, 요구하고, 일어나 행동을 취하면 된다. 불평만 하고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는 것은 건강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 한다. 

16) 국립중앙도서관(2007. 6.) 『2007년 KOLASIII 신규개발 및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확장·개선사업 제안요청서』